

중부권 최고의 사학으로 도약하는 중부대학교

장 병 규
중부대 총장



1. 연 혁

중부대학교는 1984년 ‘중부산업학교’로 충남 금산군 만인산 기슭에 상아탑을 쌓은 이래 지역사회의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여 왔으며, 내실 있는 사학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90년대에 중부학원으로 거듭남을 계기로 하여 ’93년 6개 학과 180명 정원의 4년제 대학으로 정식인가를 받아 ‘중부대학’으로 새로이 도약하였다. 이어 ’94년에는 15개 학과의 증과와 증원을 통하여 총 890명의 입학정원이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자만하지 않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10월에는 교명을 ‘중부대학교’로 변경하고, 동시에 종합대학교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95년에는 경찰행정학과, 광고홍보학과 및 연극영화학과 등 총 290명의 증과 및 증원이 있었으며, 이듬해에는 컴퓨터 그래픽학과, 사진영상학과의 신설로 200명이 증원되어 현재 입학정원 1,380명, 재적인원 3,00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대학의 교육조직은 5개 학부 18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산업과학대학원이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설치하

고 국내·외 유명인의 초빙강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경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 현 황

1) 대학 규모

'93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본교는 그 동안 교육기반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체제의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시도하였다. '95년의 정원조정은 그간 농학계열 중심이었던 인재양성을 탈피하여,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과 산업구조 조정에 맞추어 다양한 전공의 전문인 양성을 새로운 목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기본 교육 시설을 크게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94년 예술계열을 위한 제2강의동의 건립과 동시에 자연과학계열 중심의 제3강의동, 학생회관, 체육관 등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였다. 현재 제4강의동, 기숙사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편의시설 및 후생시설을 확충하여 본교의 입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캠퍼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물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를 위한 질적 교육환경의 조성 과 교육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금년에 기존 25개 학과를 5개 학부 18개 학과로 재편성하였으며, 실습 및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실습실, 사용자중심의 전산실습실 등을 완비하였다. 특히 전산실습실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의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의 환경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2) 부속 교육기관 및 연구소

본교는 부속 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중부음악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교육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산실무, 교양강좌 그리고 산업기술 및 정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원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실무 차원의 어학교육, 국제정보제공, 국제어학연수 및 교류를 주선하고 있다. 그리고 중부음악원은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제 주최, 지역순회 발표회, 금산인삼제 지원 등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부속 연구기관은 기존의 연구소를 통합하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기술종합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소, 학생생활지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소의 특성화 차원에서 특화된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대학연구소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중부정보제공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을 보조할 예정이며, 금산군의 특용작물인 인삼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금산지역 정보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대학 특성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1) 대학 특성화

중부대학교의 지정학적 위치는 다른 대학보다 비교열위에 있다. 대전 근교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잠재적 진학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작금과 같은 시장경

중부대학교 장기발전계획



◀ 중부대는 현재 5개 학부 18개 학과에 재적생 3,000여 명의 규모로, 정보기술 전문인력과 예술·문화·체육 인력 양성, 인삼 관련 교육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쟁원리 아래 대학환경의 급변하는 물결에 순응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하는 기로에서 중부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성화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세계화 및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을 새로운 교육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대학조직의 개편방향을 첫째로 교육단위조직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고, 둘째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체제로 정비하며, 셋째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조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대학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대학발전의 목표와 대학 특성화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보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이를 위하여 '95년부터 꾸준히 정보기술 관련 학과를 증원하고 있으며, 특성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컴퓨터 안전관리 전공, 컴퓨터 멀티미디어 전공, 컴퓨터 그래픽 전공 등 보다 전문화된 분야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예술·문화·체육 인력 양성이다. 본교의 생활영역인 대전광역시는 예술 및 문화생활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문 예술인이 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부 지역에 위치한 대전권이 예술·문화·체육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에 본교에서는 음악학, 산업디자인학, 연극영화학 등을 신설하여 예술·문화 전문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로 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 및 사교적 스포츠동호회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자적인 사회체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에서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5월에 연면적 2,000평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였고, 캠퍼스 내에 전자동 60타석의 골프연습장과 최신식 무용실습실을 완비하였으며 현재 사격

장, 궁도장 등을 새로 짓고 있다.

셋째, 지역화가 곧 세계화라는 전제 아래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교가 위치한 충남 금산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시장이 개장되어 전국 인삼 유통의 80%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대다수의 백작소, 인삼가공업체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이미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삼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인삼경작 및 재배기술의 지원, 인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인삼 정보와 인삼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인삼 관련학과를 육성하고, 산학 협조 아래 인삼종합연구소를 운영할 것이다.

이상의 대학 차원의 특성화와는 별도로 학과 차원의 특성화 대상으로 사회제열의 경찰행정학과, 이공계열의 인쇄공학과, 사진영상학과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2) 특성화 프로그램

다가오는 21세기의 교육은 공급 위주의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수요 위주의 쌍방향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시설 및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고급화, 교육공학의 도입 및 교육기술의 개발을 통한 교육의 과학화, 지식습득 및 기술전달에 자족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의 창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동목표와 합일된 의식이 필요하며 참여하는 교육, 선도하는 교육, 창조하는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사고에 입각하여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용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환경의 개선이 본교가 지향하는 길이며, 또한 오늘날의 경쟁환경을 능

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의 주요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단위의 자율적 운영이다. 대학의 교육목표와 상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육최소단위의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지향한다. 둘째, 경쟁사회에 자립 가능한 경제인을 양성한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의 양성은 현재의 대학이 반드시 지향하여야 한다. 셋째, 다국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계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학생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다원화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의 의무화를 통한 상황 변화 능력의 증진, 자립 가능한 능력 있는 인재의 조기졸업제 실시, 전산 및 외국어 능력에 대한 패스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이 인증할 수 있는 인재 배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사제 관계를 벗어나 인간본위의 교수-학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담 지도교수제 도입,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봉사 과목의 이수 필수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화 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내년 모스크바 인쇄공과대학에 연수할 예정인 인쇄공학과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개방적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21세기 발전계획

본교는 올해로 종합대학교로 새롭게 조직화된 지 3년이 되었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본 대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대학 또는 국립대학의 대학 개혁 및 발전 프로그램을 모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90년대 이후 내적으로 교육의 자율화, 외적으로 교육시장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거센 변혁을 지속하고 있는 대학교육환경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력을 갖고 새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95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내·외적 환경 분석의 부족과 전략계획의 비현실성으로 효과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본교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신교육정책의 물결과 개방화의 파고는 계획 자체를 계획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조직경영의 성과 측정 기준이 되는 여러 지표는 '교육'이라는 무형 재화를 대상으로 하며, 그 투입 산출의 측정이 정량화될 수 없는 대학경영의 특수환경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수 있

다. 그러나 거듭된 시행착오 속에서도 본교는 교육의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며, 현실에 맞는 발전방법론과 전략을 모색하여 왔다.

올해 들어 그 동안의 발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계획방법론의 측면에서 그 동안의 하향식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향식 방법론을 절충하였으며, 대학구성체가 일체성을 갖는 목표를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중부대학교의 발전계획의 목표는 '교육소비자가 만족하는 중부권 최고의 사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단기발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 적응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모든 대학 자원의 가용 능력을 파악하고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먼저 발전목표의 첫째 과제인 '교육소비자의 만족'은 앞으로 현실문제로 등장할 교



◀ 중부대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교육과정과 자신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목표교육을 지향하여 교육소비자의 욕구와 만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육수요자 부족현상에 대비하여 학생의 지적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조직, 교육내용, 교육과정 그리고 행정조직의 개편과 이에 조응하는 교육지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공급자중심의 교육은 잠재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저품질 양산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중심 또는 교육중심의 교육체제를 완비하기 위하여 교육조직의 개편,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방법의 품질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행정의 재조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중심'은 소비주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의 충실화를 위한 교수-학생의 일차적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학생-대학의 이차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원만히 구축함으로써 학생을 교육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주체로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한 대학행정의 재조직화는 필수적이다. 대규모 조직의 내재적 비효율성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치명적인 결점을 보인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대학행정의 기본조직은 소비자 친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되, 주변조직은 프로젝트 조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위기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둘째, 본교가 목표하는 '최고의 대학'은 수량 또는 규모면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대학들이 가시적으로 추구하는 대학목표는 모든 능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재양성이다. 이는 마치 대학이 만능의 슈퍼맨을 양성하

는 곳으로 착각하게 한다. 현재의 사회경제 발전과 신기술 증가 추세로 보건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의 80% 이상은 대학졸업 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대다수의 대졸 취업자가 대학의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전공교육과 취업공부의 이질적 상황이 상아탑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교육과정과 자신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성취하게 하는 목표교육을 지향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욕구와 만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공선택의 다양성, 전 학부(과)의 수월성, 이론과 현실교육의 접목 그리고 열린 교육의 실천적 실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인재의 모집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 지향적 교양인의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많은 것' 또는 '모든 것'을 교육하는 대학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하여 졸업 후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발전목표는 서로 조응하면서 본교의 교육이념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교육 자율화와 개방화의 경쟁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대학은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만연했던 상아탑의 오만스러움을 과감히 떨쳐내고 신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한국적 민주사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도덕적 선민을 육성하며, 외적으로 정보사회 및 기술패권주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시대적 소명이다. ■